

이기는 삶

화 내봐야 아무소용없다

누군가 실수를 하면 우리는 화가 나서 고향을 지르곤 한다. 화를 낸 이유는 실수한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화를 내도 그들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반항심만 커져갈 뿐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위치한 GM 공장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매일이 전쟁의 연속이었다. 일하는 시간보다 항의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파업은 일상 다반사였다. 노동자들에게 처벌을 가하면 자동차에 일부러 흠집을 내거나 부품을 고의로 장착하지 않았다. 1982년 GM은 마침내 프리몬트 공장을 폐쇄했다.

다음 해에 토요타가 미국에서 최초로 자동차공장을 건설하면서 GM과 제휴를 맺게 되었다. 프리몬트 공장은 재가동되었다. 이 때 공장에 재고용된 것은 GM 시절에 최악이라 불렸던 바로 그 노동자들이었다. 우선 토요타는 프리몬트의 노동자들을 일본으로 보내서 완전히 새로운 작업 방식을 보여주

려 했다. 토요타 생산 방식이라 불리는 작업 방식이었다. 토요타에서는 현장의 노동자와 관리자는 한 팀으로 간주된다. 노동자가 실수를 해서 라인을 멈춰도 관리자가 화내는 법은 없었다. 화를 내기는커녕 노동자를 어떻게 도울지 현장으로 직접 와서 의견을 청취했다. 프리몬트 노동자들 입장에서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서로 협력하는 토요타의 작업 방식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3개월 후, 프리몬트의 노동자들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공장은 재가동되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항의 활동이나 무단결근은 완전히 사라졌고 노동자들은 일하러 오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게 되었다.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최악이라 불렸던 프리몬트 공장은 미국에서 최우수 공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이 제작한 자동차는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고 제조비용도 크게 감소했다. 문제는 노동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운영방식에 있었

던 것이다.

누군가 실수를 하면 우리는 종종 화를 낸다. 왜 화를 냈냐고 물으면 "누구라도 욕을 먹고 싶어 하지는 않으니 화를 내면 앞으로 조심할 테니까" 라고 답한다. 그러나 화내봤자 소용없다. 노동자들은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운영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라는 것이다.

GM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매일같이 실수를 했다. 엔진이 반대방향으로 장착된 차, 핸들이나 브레이크가 없는 차, 엔진조차 없는 차도 생산되었다. 당시의 관리자들은 화를 내기만 할뿐이고 노동자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어떤 이상을 발견해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기 때문에 문제는 방치되었다. 반대로 토요타 공장에서는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다. 조립라인 상에는 '안돈' 이라 불리는 빨간 코드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코드를 잡아 당겨 라인을 멈출 수 있었다. 코드



를 당기면 램프가 깜빡이고 금방 관리자가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였다.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는 그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서 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다른 사람의 머릿속까지 컨트롤 할 수는 없다. 화를 내도 그들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보아야 한다.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을 대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운영방식에 변화를 준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The true descendants of Israelites : Korean!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 한국인

이스라엘과 한국은 많은 인류학적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외모적인 면에서 닮았습니다.

▶ Israelis and Koreans have many anthropological similarities. First, We can take the similarity of appearance.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셈은 황인종(유대인)의 조상이며 함은 흑인의 조상, 백인의 조상은 야벳이었습니다.

▶ Among Noah's three sons, Shem was the ancestor of the yellow, Ham of the black, and Japheth of the white.

그리고 노아는 함은 셈의 노예가 될 것이며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 And then, Noah predicted that Ham would be the slave of Shem, and Japheth would live in the tents of Shem(Genesis 9: 25-27).

이것은 메시아 구세주가 셈(황인종)의 종족 즉 이스라엘인에게서 출현할 것을 의미합니다.

▶ This means that Messiah will come from the tribe of the yellow, Shem, that is, Israelis.

황인종은 검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키 작은 종족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키가 작고 검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습니다.

▶ The yellow are short and dark-haired. As the Bible has it, the tribes of Israel were short and dark-haired originally(Numbers 13:32-33).

한국인들은 단일민족의 혈통을 가진 전형적인 황인종입니다. 그들은 짧고 검은 머리카락입니다.

▶ The Koreans are typical yellows who have retained the lineage of a single race. They are short and black-haired.

게다가 한국인들의 골격 구조는 고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골격 구조와 골상학적으로도 많은 유사점을 가집니다.

▶ What is more, their skeletal structure i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old Israelites physiognomically.

그러므로 한국인들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임에 틀림없습니다.

▶ Thus, it is certain that the Koreans are the descendants of the ancient Israelites.*

by Alice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망이요(롬5:21) 사망은 무덤이니까 죄가 영적 무덤이 된다. 신약성경의 토대를 구축한 사도 바울도 '죄가 영적 무덤이다' 라는 부분적인 지식을 소유했지만, '나라는 주체의식이 영적 무덤이다' 라는 온전한 지식은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다.

전지전능을 되찾은 참부활자, 이긴자

참부활자는 영적 무덤이 사망의 신이요,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고린도전서 15:26)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부활도 영적 무덤을 파하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올바르게 가르친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임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는 구절에서 사망의 정체와 사망(무덤)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인류가 기다리던 이긴자 구세주 임에 틀림없다. 욕심이 죄라면 욕심 자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요, '나' 라는 주체의식이 욕심을 부리는고로 곧 '나' 라는 주체의식이 원죄가 되는 선악과이며 사망의 신이 되는 영적 무덤임을 알 수 있다.

주체의식이 되는 영적무덤을 파하고 양심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된 부활자는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된다.

1980년 10월 15일에 부활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완성된 이긴자는 육천 년 전에 선악과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전능전능을 상실한 보통 하나님에서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하나님으로 성공함으로써 전지전능을 되찾은 것이다. 그 증거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동방 땅 끝 모퉁이가 되는 한반도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 하나님이 나오셔서 공산주의를 없애는 권능을 보여주었고 태풍을 막고 여름장마를 못 지게 하여 해마다 대한민국에 풍년들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 또한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겠다고 하셨다.

최근 북한에서는 수소탄 실험을 성공했다는 이 마당에, 한국 백성만이라도 전쟁을 막고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겠다는 승리자 구세주의 각별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야 하겠다.*

박태선 기자

1면: 이긴자는 참부활자요 거듭난 자로 전지전능을 되찾아 행사하는 무적장수

전 세계 방방곡곡에 알려야 하겠다.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옛날에 너희는 성령이 되는 하나님이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므로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말씀과 짝을 이루어 온전한 구원론이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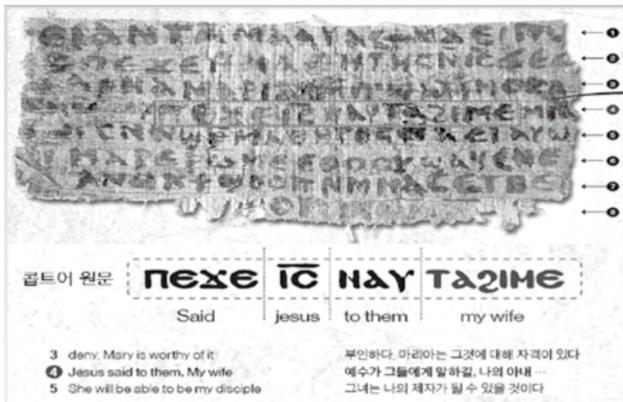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나' 라는 마귀를 죽여 없애야 되는데, 지구 땅 그 어디에 가도 마귀를 없애는 방법과 마귀를 죽여주는 구세주를 찾을 수 없지만 오직 한반도에서 출현한 이긴자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비결을 논하고 살파광선이 되는 이슬성신으로 마귀를 죽여 하나님을 만드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비성경적인 육적 부활은 없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헤와 이레로 6천 년 만에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긴 이긴자란 성경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또한 부활함을 입은 자이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 말이요, 성경 말이 영적 말이고 영적 부활을 논해야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적인 영적 부활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몸이 다시 살았다고 하는 비성경적인 육적 부활을 아직까지 맹신하며 고집하는 비진리의 단체가 유독 한국에서만 스스로 정통 교단인 양 위세를 떨치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이미 35년 전부터 개신교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회교로 전향하는 등 신자 수가 크게 줄면서 유럽 교회 건물들이 매각된 후 상가, 체육시설, 술집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추세다(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 2015. 1. 3 기사 참조). 이러한 기독교의 몰락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판결함으로써



고대 고프어 파피루스 문서: 예수 아내의 복음서

골 예수의 부활도 없었다는 것이 저절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BBC 방송기자가 펄낸 <성혈과 성배>라는 책에서 밝힌 대로,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프랑스로 망명하여 84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는 것이 영국법정에까지 도마에 오르게 되었고 결국 BBC 방송기자가 예수의 과거를 추적한 내용 그대로 예수의 후손이 프랑스 메로빙거 왕족으로 신분이 상승함으로써, 옛날 왕들이 여자를 한 명만 거느린 게 아니고 수천 명씩 거느리는 관습을 이어받아 수백 명씩 되는 왕의 자식들을 낳은 것처럼, 예수의 후손 또한 프랑스에 무척 많이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후손을 영국법정에 데려오기 쉬웠고 증인으로 나온 예수의 후손들이 가져온 족보(族譜)마다 하나 같이 그들의 조상 예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대대로 예수를 믿어왔던 집안의 주심판사라고 할지라도 소명자료로 제출한 족보가 너무나 확실하기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미국 하버드 신학대의 캐런 킹 교수가 로마 국제컴퓨터학회에서 "예수가 마리아를 '내 아내' 라고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고대 고프어 파피루스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가 발각 뒤집혀진 적이 있는데 불과 5년 전의 일이다. 2세기 그리스어로 쓴

나의 잔치집의 주인공인 신랑 어머니가 곧 예수의 어머니임을 알 수 있다.

예수를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외경(外經)이나 가경(假經)에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음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목은 포도주를 끌어내다가 손님을 대접하니까 나중 나온 포도주가 더 맛이 좋더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다. 그런 고로 예수가 장가 간 사람이 분명한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부터 그 제자들이 예수를 부를 때에 '선생님' 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 라고 호칭하는 것이다(마26:25, 막11:21). '랍비' 는 유대 나라에서 장가 간 사람을 호칭하는 히브리어다.

이상과 같이 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 가나의 혼인 잔치의 신랑이 예수라는 사실을 깨낼 수 있지만 신부가 누군지 그 이름을 알 수 없다. 그런데 고대 고프어 파피루스 문서에 의해서 예수의 아내가 '마리아' 로 퍼즐이 맞추어진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로마병정의 호위 속에 밤중 몰래 프랑스로 망명할 때, 예수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자녀가 함께 했다는 <성혈과 성배>의 내용이 신빙성을 더한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부활도 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의 동굴무덤에 안치시켰는데 3일 만에 죽은 예수의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여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다. 설령 예수의 몸이 다시 살아났대도 치더라도 그것은 육적 부활에 해당함으로써 성경적인 영적 부활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적인 부활이란 성경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고로 하나님에 대한 부활을 말한다. 즉 영적 무덤 속에 갇힌 하나님께서 영적 무덤을 파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해서 '부활함을 입었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준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

그럼 영적 무덤은 무엇인가? 죄(罪)다. 성경에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된다(롬5:12)고 했으므로, 죄가 곧 사

가나의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였다

또 다른 한편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초대받고 간 것처럼 꾸며져 있지만 사실은 예수의 결혼식이라는 것이다. 성경 기자에 의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신랑이 예수라는 것을 아무리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손님을 대접하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상하게도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알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의 어머니가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면 그 집안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 그대로 예수의 어머니가 혼례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도 수일 전부터 가나에 머물고 있었던 정황과 요한복음 1장 5절의 내용 그대로 예수의 어머니가 잔치집의 하인을 마음대로 부리는 주인행세를 비추어 보아 가